

내달 30일 계좌이동제 ... 800조 자동이체 시장 격변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주거래 계좌 고객을 얼마나 새로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 연간 8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자동이체 시장의 파이가 결정되는 셈이다.

◇16개 은행 참여... 내년 2월부터 웹사이트서도 변경=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3일 “10월 30일부터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이다. 건당 평균 이체 금액은 31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

16개 은행 참여... 웹사이트서도 변경 가능 잇단 특화상품 출시 경쟁...고객 확보 나서

출금식 예금 잔액은 419조원이다.

계좌 수는 2억개이고 이 가운데 개인계좌가 1억9000만개(97.1%)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 수는 6000만개(31.7%)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당장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지난 7월부터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탓에 조회·해지 건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권 특화상품 출시 경쟁...격전 불가피

=시중은행들이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내놓는 특화상품은 주거래 통장, 예·적금·대출 기능을 묶은 패키지 형태가 대부분이다.

고객 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말 통장·카드·적금·대출을 묶은 ‘KB국민ONE 라이프 컬렉션’을 선보여 흥행에 성공했다. ‘KB국민ONE통장’은 출시 두 달 만에 17만 5196계좌를 돌파했고, 판매 잔액은 4058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1일 한 몫으로 닷을 올린 KEB하나은행도 정기예적금, 주거래 통장, 중소기업대출 기능을 포괄하는 ‘행복투게더 패키지’를 출시하고 고객확보에 나섰다. 월급, 공과금 이체 등 주거래 요건을 1개만 충족해도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타 은행 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한다. 정기예금은 1년제로 1인당 가입한도는 5천만원이고, 적금은 5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6%의 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일 예금과 적금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우리 주거래 예금’을 출시했다. 한 계좌로 예금과 적금 상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기예금을 적금처럼 자유롭게 추가 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에는 자동 재예치돼 최장 10년간 복리효과도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주거래 통장과 적금 등을 아우르는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통장, 적금, 대출 기능을 담은 ‘NH주거래우대 패키지’를 오는 15일 선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각 은행이 긴장하고 있다”며 “주거래 고객을 붙잡기 위한 상품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개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미국 금리 인상 여부 촉각

철강·화학·정유 모멘텀 유효

지난주(7~11일) 국내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전체적인 관망세의 분위기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한 이슈 없이 관망세 분위기 속에서도 주중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등 G2로 대변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일회 일비하는 변동성이 반복됐다. 결국 시장의 방향을 대변하는 큰 줄기는 중국의 경제침체 여부와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었다.

지난 9일에는 일본 Nikkei 지수가 7.2% 상승하며 22년 만에 최대폭 급등세를 보였다. 미국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및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그동안의 낙폭이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의 반등도 있었다.

이번 주(14일~18일) 주식시장은 역시나 FOMC 결과에 따른 달러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FOMC 회의 이후 엘런의 시장 친화적 장기 금리 전망 발표가 예상되고 KOSPI 1800pt 후반 단기 바닥 심리가 강화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 최근 중국 인바운드 여행객수 증가, 지난 선물옵션 만기 이후 배당향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 예상되는 점은 이번 주 시장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미국의 9월 금리결정 이전 관망심리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시 이머징 마켓 투자자금 회수 우려는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이코노미스트들과 IMF 등은 9월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조금의 금리인상에도 이머징 시장의 자금회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관망심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친 연준은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9월 금리인상 진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장의 충격 등 상쇄 위해 엘런의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시장친화적 발언, 즉 완만한 금리인상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대응전략으로는 FOMC 이전에는 관망심리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FOMC 이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랭리를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적 자본의 이탈에 따른 달러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머징통화 약세 완화, 유가등 원자재 가격 등 바닥통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에 소재(철강, 화학, 정유) 섹터에 대한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 자 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랍스터, 추석선물 최고 인기 상품 급부상

지난해 굴비 매출액 육박

이마트, 작년보다 2배 ↑

랍스터가 추석선물로 인기다.

13일 이마트는 고급 갑각류의 대명사인 랍스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캐나다산 랍스터(2.3kg/11만8000원)를 지난해 추석 때 물량의 2배 수준인 2000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작년에 처음으로 랍스터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았으며 랍스터(세트당 2.3kg) 1000세트를 10일 만에 완판했다. 올해 설에도 1200세트를 준비해 모두 판매했다.

현재 이마트에선 500g 안팎의 랍스터를 1마리에 1만5800원, 할인행사 기간에는 1만1000~1만2000원에 판매된다.

이마트의 최우택 수산팀 바이어는 “지난해 추석부터 준비한 물량을 모두 소진하는 등 랍스터

선물세트가 최고 인기 상품으로 떠올라 올해 추석을 앞두고 물량을 2배 수준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랍스터를 비롯해 대게, 킹크랩의 매출액은 2012년 3억8000만원, 2013년 70억원, 2014년 154억원으로 2년 새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랍스터 매출은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9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도 작년보다 15% 뛰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랍스터·대게·킹크랩의 매출액인 154억원은 이 기간 굴비 매출액 164억원의 94%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급 갑각류 소비가 늘면서 관련 이색 상품도 등장했다.

이마트는 올해 1월부터 꼬리 부분만 따로 떼낸 미국산 랍스터 테일(500g/7500원)이 팔기 시작해 상반기에만 1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킹크랩은 러시아산 킹크랩의 절반 수준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연합뉴스



13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프리미엄 진공·로봇청소기 할인 이벤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진공·로봇청소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

삼성전자는 추석을 앞두고 9월 30일까지 프리미엄 진공청소기와 로봇청소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션싱크 추천 기획전은 프리미엄 진공청소기 모션싱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할인 혜택과 행사모델에 따라 진공청소기·물걸레청소기 동시에 가능한 교체형 물걸레를 제공한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되는 파워북 보습판매 이벤트는 구형 로봇청소기를 반납하고 파워북 행사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납하는 구형 제품은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는다. 행사모델에 따라 삼성 스틱청소기와 3M 물걸레 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로 민첩하게 회전하고 부드럽게 이동하며 업그레이드 된 사이클론포스 멀티 기술로 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한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파워북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만5000대를 기록하고 70만원 이상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약 90%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무인텔
부지매매
토지 직거래

건축 허가
즉시 가능

상업지역
총 3필지
각 1필지당
220평(730m²)

총 660평
(2,181m²)

주인 직매
010-5450-1172

나주혁신도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자연과 도시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대자연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초특급 독립생활!!

●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이 결합
● 넓은 개인정원과 높은 일조권 확보
● 보안 및 관리가 쉽고 소음과 주차문제가 없음
● 개인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장
● 다양한 공동부대시설(공감대 형성의 커뮤니티 시설)

자연과 사람을 위해 집을 스케치하다!

시공 시행 : 성천종합건설(주) 성천 타운하우스 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상담문의 010-6565-2010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물영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30% 할인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